

明代 遼東支配의 構造와 限界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를 중심으로-

南 義 鉉 강원대학교

1. 序 論

1. 研究目的

본 논문은 明代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의 구조적 한계와 몽골 여진 등 대외세력의 성장을 통해 명대 遼東지배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명대는 명, 조선, 몽골, 女眞이 요동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인 시대이다. 명은 요동도사를 통해 요동 정책을 진행시켜 나갔다. 내부적인 방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軍事的인 側面에서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衛·所·城堡·烽燧臺(墩臺)·城池修築을 통해 군사적 방어를 시도하였다. 經濟的으로 屯田의 經營, 海運과 河運의 整備 그리고 驛路網의 건설을 통한 군수공급체계의 확보와 유통의 발전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政治的으로 朝貢關係, 通貢互市, 馬市의 개설과 초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변민족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明代 初期의 적극적 정책들은 永樂時期를 정점으로 점차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明代 遼東支配의 中樞라고 할 수 있는 遼東都司는 明代 初期 遼東의 일부만을 지배지역으로 차지하였기 때문에 軍事·經濟·政治的인 방면의 전략은 주로 오늘날 遼寧省 내에 국한되는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奴兒干都司 역시 1430년대 宣德年間을 기점으로 그 女眞招撫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永樂年間 이후의 방어적 정책들은 축성중심의 매우 소극적 방어정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대외세력의 성장에 따라 9邊을 비롯한 東遼의 방어체제도 흔들리게 되었으며 방어체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 곧 永樂帝 사후 몽골과 女眞을 제어하는데, 이미 그 한계를 나타내게 됨으로써 遼東의 遼東都司 역시 그 지배력의 限界를 보여주고 있었다.

明代의 북변방어는 9邊에 걸쳐 있어서 군사력이 遼東을 포함한 北邊으로 분산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성장하는 특정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마저 보일 수 밖에 없었다. 명은 朝鮮과 女眞의 점축에도 깊숙이 간섭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북변의 문제에 골몰하느라 朝鮮을 강하게 견제하기도 어려웠다. 明代 後期 遼東都司는 문제점들이 극대화되어 더 이상 遼東都司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明代 요동방어의 핵심이었던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는 시기별로 그 성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明代 변방정책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성과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遼東都司 · 奴兒干都司의 設置와 기능과 특징, 몽골정책과 여진의 성장 등 대내외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명대 북방정책과 요동지배구조가 약화되는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1.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의 設置

1. 遼東都司 防禦體系의 形成

明朝가 요동지배를 위해 우선 설치했던 것은 遼東都司이다. 遼東都司는 명의 방어체제가 都司와 衛所體制로 전환되면서 설치되었다. 洪武年間은 주로 中原에서 北元軍을 축출하려는 군사적 정벌이 시도되었으며, 심지어 대대적인 군사를 동원해 몽골초원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 초기 초원의 몽골 세력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지역상 너무 넓고 명군은 사막전과 초원전에서 약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명조는 초원을 장기적으로 장악할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몽골초원을 대대적으로 정벌하려던 계획이 실패함으로써 명과 몽골은 점차 9邊을 경계로 對峙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로써 명은 9邊을 중심으로 방어시설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였다. 9邊의 방어체계 중에 遼東은 洪武 12年(1387)을 전후하여 遼東都司 아래에 金州衛(大連 金州), 復州衛(瓦房店 復州鎮), 盖州衛(盖州), 海州衛(海城), 遼海衛(海城 牛庄鎮), 定遼左衛, 定遼右衛, 定遼前衛, 定遼後衛, 東寧衛(이상의 5衛는 모두 遼陽에 治所가 있음), 瀋陽中衛, 瀋陽左衛(두 衛는 瀋陽에 치소가 있음) 등 12衛를 설치하였는데, 이 12衛는 遼南에서 遼北으로 향하고 있으며 遼東의 구릉과 평원을 전략적으로 적당히 이용하면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요동의 위소가 정비되던 시기 遼東의 북부는 納哈出이 점거하고 있었다. 洪武 20年(1387) 朱元璋은 몽골군과 여러 차례 전투경험이 있는 馮勝, 傅友德, 藍玉 등으로 하여금 20만의 納哈出군과 대항하도록 하였으며, 결과 納哈出은 패하였으며, 명이 遼陽을 중심으로 遼東의 일부분을 장악하여 遼東都司 중심의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곧 納哈出과의 전투는 明代 前期 북방정책에 있어 극동의 중요한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사건이었으며, 遼東과 遼西를 쉽게 연결함으로써 극동의 전초기지를 확보함으로써 明代 9邊防禦政策에 일대 轉換點이 되었다. 이후 洪武 22年(1389)~洪武 25年(1392) 사이 北元의 遼王이 항복하고, 哈密(하미)왕 兀納失里가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親明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洪武 25年(1392)에는 周興으로 하여금 北元의 잔여세력을 공략하여 遼東과 北邊의 방어를 한층 안정시키고자 하였다.¹⁾ 곧 洪武시기는 군사적 역량을 이용하여 中原, 西北, 雲南 그리고 遼東 일부를 점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북변의 방어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들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서북지역 역시 洪武 5年(1372)에 甘肅都司, 庄浪衛指揮使司, 洪武 8年(1375)에 陝西都司, 洪武 12年(1379)에 陝西行都司를 설치하면서 都司와 衛所 중심의 방어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북변 역시 洪武 8年(1375)에 이전에 설치한 燕山都衛, 太原都衛, 大同都衛를 北平都司, 山西都司, 山西行都司의 都司體

1) 『明太祖實錄』 洪武 25年 3月 甲申.

制로 전환하면서 방어체제를 강화해나갔다.

이러한 都司 衛所體制는 각 지역에 따라 그 규모와 성격이 조금씩 달랐으나 기본적으로 몽골을 방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어조직으로, 明은 이 체제를 중심으로 遼東, 大寧, 北平, 宣府, 大同, 寧夏, 甘肅 등의 중요한 관문들을 통제하고 보호하였다.

遼東都司는 1375년 설치된 이후 25衛 體制를 정비·확대해 나가는 한편 宣德年間을 전후하여 衛所와 더불어 遼東都司 관할지역 내에 35개의 驛站網을 설치하였다. 더불어 물자를 수송하는 遞運所, 공문을 전달하는 急遞鋪를 설치하여 遼東의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어망을 형성하였다. 특히 急遞鋪는 대부분 城堡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城堡들은 주로 明 中·後期로 오면서 수축된 것으로, 遼東의 危機가 심화됨에 따라 城堡의 수축을 통해 屯戍의 방어, 거주민의 보호, 왕래인들의 안전, 그리고 遼東 驛路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보조역할을 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해안지대 역시 초기부터 倭寇를 방어하기 위해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주로 海州·金州·復州·盖州 등 渤海灣에 근접한 遼南地域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해안방어선이 설정되었다. 해운을 통해 군수물자를 수송했던 運送軍은 주로 군대의 편제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군량수송시 엄격한 규율로써 통제하였다. 海運을 통해 遼東都司로 운송되던 물자는 주로 遼東防禦에 필요한 군수품이었으며, 군량·군복·포·면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군량은 洪武時期 納哈出을 정벌하기 위해 75만여 석의 군량을 遼東으로 수송한 경우이다.

遼河流域에 위치한 부두들은 海運과 연결되어 明의 군수품을 변경으로 공급하는 통로역할을 하였다. 많은 河口 중 遼河는 수량이 매우 풍부하여 遼東都司의 북부방어선으로 군수품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河運路였으며, 군사적으로도 遼東防禦線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위치상 遼東防禦線의 外邊이어서 늘 몽골세력에게 공격받을 위험이 있었다. 즉 몽골세력이 遼河를 위협하는 상황은 遼東과 遼西의 자연스런 왕래를 가로막았다. 明朝는 遼河에 浮橋를 만들어 그 왕래를 쉽게 하고 遼東防禦를 효과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明代 初期 遼東都司 防禦體系는 비교적 견고하게 형성되었다.

永樂年間은 奴兒干都司의 設置, 5차의 몽골 親征을 통해 北邊과 遼東都司에 대한 몽골의 압력을 감소시켰으며, 180여 개의 女眞衛所를 설치함으로써 遼東都司 중심의 방어체계를 吉林과 黑龍江 지역으로 확대시켰다. 이로써 遼東都司 管轄範圍를 대폭 확장시켰다. 말하자면 洪武·永樂年間은 明朝가 遼東으로 진출한 후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방어체계를 정비하여 그 관할범위를 확실하게 확장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永樂年間 이후 遼東都司는 점차 몽골의 위협과 女眞의 성장으로 더 이상 대외적으로 팽창하지 못하고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奴兒干都司와 女眞招撫

燕王은 靖難의 變을 통하여 帝位에 오른 후 재위기간 동안 邊境의 몽골과 여진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몽골 초원 지역의 분열된 국면을 이용하여 사신을 보내 회유하기도 하고, 5차의 親征을 시도함으로써 동몽골, 서몽골을 적절히 통제하고 그들의 성장을 막고자 하였다.

永樂帝가 추진한 북방정책 특징 중의 하나는 동서몽골의 분열을 이용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몽골세력의 통일을 막는 세력균형정책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몽골 세력간 소모전을 전개하

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명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맺도록하여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초기에는 中·後期에 볼수 없을 정도로 몽골과 明 사이에 많은 通貢關係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황제의 의해 직접 지시되었다.²⁾ 특히 경제적인 互市는 당시 변경 근처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던 몽골세력들에게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互市는 이들을 회유하는데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³⁾ 그리고 哈密에 哈密衛 등을 세움으로써 동북에서 서북에 이르는 방어체계 속에 호시를 개설함으로써 변경지역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永樂帝는 재위기간 동안 5차의 대대적인 몽골친정을 준비하며 배후의 女眞을 견제하기 위해 女眞 지역에 奴兒干都司와 많은 女眞衛所를 설치하였다. 奴兒干都司는 永樂 2年(1404) 奴兒干衛를 설치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으며,⁴⁾ 이후 奴兒干衛의 수령이 明朝에 조공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永樂 3年(1405), 永樂 4年(1406), 永樂 10年(1412) 등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 奴兒干都司가 정식으로 설치된 것은 永樂 7年(1409)의 일이다. 奴兒干都司를 설치하면서 東寧衛의 지휘 康旺을 都指揮同知로, 千戶 王肇舟를 都指揮僉事로 임명하였다.⁵⁾ 그리고 同年 6월 經歷司 經歷 1명을 배치하였다.⁶⁾ 그러나 奴兒干都司는 內地의 都司와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奴兒干都司는 永樂 後期부터 기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 관할하에 있던 많은 女眞衛所가 明에 조공한 횡수 역시 현저히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奴兒干都司는 永樂 시기 일반내지와 마찬가지로 都司의 형태로 설치되었지만 明 시기 내내 안정되게 그 형태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永樂帝가 그의 재위기간 동안 몽골親征으로 인한 배후의 안정과 黑龍江과 松花江 유역의 女眞을 초무하고 회유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永樂帝 이후 더 이상 그 기능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女眞 지역에 지배권을 발휘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奴兒干都司가 설치된 지역은 遼東의 極邊으로 실제 遼東都司 관할 지역 이외의 전 지역을 상대로 행정과 사법을 주관하기는 힘들었으며, 주로 松花江과 黑龍江 일부지역의 女眞衛所만을 관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奴兒干都司가 여진을 초무한 사료적 증거로는 『敕修奴兒干永寧寺記』를 들 수 있다. 1411年(永樂 9) 봄 內官 亦失哈 등이 군 1천여 명과 巨船 25척을 이끌고 가서 奴兒干都司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곧 亦失哈의 1차 招撫이다. 奴兒干都司는 1411년 이전에는 전혀 행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시기 1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간 것은 영락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오던 초무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1411년의 1천여 명의 군대가 동원된 초무는 이전의 초무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차이점도 찾아낼 수 없으며, 초무정책의 일환으로 奴兒干都司가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奴兒干都司는 建州女眞으로 파견되는 明의 使臣을 안내하거나 보호하는 역할, 문서의 전달 등을 주요한 임무로 하였다. 이러한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은 奴兒干都司의 행정구조에서 드러난다. 奴兒干都司에는 많은 관리가 파견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遼東都司에서 파견된 군사 2백여 명이

2) 『明太祖實錄』 洪武 35年 11月 壬寅; 『明太宗實錄』 永樂 元年 5月 乙未.

3) 『明太宗實錄』 永樂 元年 11月 辛卯.

4) 『明太宗實錄』 永樂 2年 2月 癸酉.

5) 『明太宗實錄』 永樂 7年 閏4月 己酉.

6) 『明太宗實錄』 永樂 7年 6月 己未.

주둔하면서 奴兒干都司의 일을 처리하였다. 관할지역은 넓었지만 奴兒干都司 자체의 규모는 다른 都司에 비해 매우 작았으며 군사 중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永樂 12年(1414) 都指揮同知 康旺이 주둔군을 증강시켜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永樂帝의 명으로 遼東都司로부터 다시 3백여 명의 군사가 奴兒干都司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奴兒干都司에 군대가 장기간 상주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1411년과 1414년에 각각 ‘駐軍 200’ ‘駐軍 300’ 정도의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奴兒干都司의 안전을 위해 주둔한 흔적만을 볼 수 있다. 역시 다른 都司에 비하면 소수의 군사만이 奴兒干都司를 보호하고 있으며 다른 內地의 都司나 遼東都司와 비교해 보면 여진초무를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奴兒干都司의 조직과 구조를 요동도사와 비교해 보면, 遼東都司가 그 아래 經歷司, 判斷司, 司獄司의 3개의 기구를 두고 행정과 사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奴兒干都司는 都指揮使와 都指揮僉事, 都指揮同知 등이 都司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한다. 그리고 경력사의 ‘經歷’ 1명과 ‘吏’ 1명이 있다. 권력의 구성요소인 사법권을 담당하는 관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본다면 ‘經歷’과 ‘吏’는 奴兒干都司의 秘書 정도에 해당하며, 문서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할 뿐 사법적인 기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內地의 都司와 같이 사법권을 담당하는 斷事司와 司獄司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관할권과 사법심판권을 奴兒干都司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奴兒干都司에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만한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 내지와 같은 권력기관으로 볼 수 없다. 즉 奴兒干都司는 필요에 따른 招撫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락시기 赤失哈의 奴兒干都司에 대한 招撫는 永樂帝의 몽골친정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몽골친정 시 초무를 통해 배후세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奴兒干都司는 초무의 역할 이외에 행정 사법적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실제 관리로 임명된 사람들이 받는 녹봉도 내지 都司의 관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내지 都指揮同知的 녹봉이 576石이지만 당시 奴兒干都司의 都指揮同知였던 王肇舟는 192석만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都指揮僉事의 봉록은 420석이지만 당시 奴兒干都司 都指揮僉事이던 王貴 역시 192석만을 받고 있다. 이것은 내지의 관직과 변방의 관직에 기능상의 차이 때문에 차별을 두었다는 점, 그리고 奴兒干都司가 행정활동과 사법활동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별적인 봉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永樂 宣德 연간 奴兒干都司의 중요한 관리이던 赤失哈 등이 遼東都司의 太監으로 임명됨으로서 遼東都司의 정세를 중앙에 보고하고 있다. 즉 그가 遼東太監으로 임명된 1441년(正統 6) 이후 더 이상 奴兒干都司의 女眞招撫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正統年間을 전후로 가장 중요한 초무 기능조차도 이미 상실함으로써 奴兒干都司는 정치적인 기능을 상실하였다. 奴兒干都司는 처음 설치될 당시부터 흑룡강 하류 유역의 부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元代에 설치된 역참을 관리하거나 특산물을 받기 위해 주로 설치되었다. 흑룡강 하류의 역참은 약 15개 정도로 흑룡강 중 상류 역참의 4분의 1에 해당할 뿐이다.

1430년(宣德 5년) 宣德帝가 도지휘 康旺, 王肇舟, 侈答刺哈 등에게 칙유를 내려 奴兒干 지역을 순시 하도록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역시 奴兒干都司가 위치한 흑룡강 하류의 衛들만이 주로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위들은 奴兒干, 海東囊阿里(庫頁島 囊哈兒衛), 吉列迷, 恨古河, 黑龍江·松花江·阿東江 유역의 여진부락들만이 그들의 초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다수의 여진위소는 奴兒干都司의 통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奴兒干都司는 분명히 명조의 국가정책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분명히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앞서도 언급한 바 招撫에 대한 권한이었으며, 여타 都司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권과 사법권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무에 대한 권한 역시 正統年間을 전후로 奴兒干都司의 핵심관리들이 遼東都司의 太監으로 임명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관직을 승습하는 등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더 이상의 어떠한 초무기능도 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II. 몽골·女眞의 成長과 遼東

1. 요동도시와 몽골

명대 몽골정책은 다양한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洪武시기는 遼東을 선점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열한 전투를 통해 몽골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 당시 요동은 納哈出 등의 복원 세력이 상당부분 장악하여 명의 요동진출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는 명의 遼東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홍무 7년(1374) 李文忠은 大寧을 점령하였으며, 다음해 遼陽에는 遼東都司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387년 馮勝, 傅友德, 藍玉 등이 최대의 복원 세력 納哈出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명의 遼東都司 체제는 급속히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洪武 22년(1389) 北元の 遼王 阿札失禮가 항복하여 온 것을 계기로, 兀良哈 3衛(泰寧, 朵顏, 福余)의 指揮使를 각각 몽골인으로 임명하고 기미위소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홍무 시기는 여전히 명과 몽골은 九邊(萬里長城)을 중심으로 對峙의 국면이 지속되었다. 명 태조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방을 점령해 나가면서 변방의 방어체계를 강화해 나갔다. 곧 都司·衛所體制는 그러한 전략의 일원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9변을 형성해 나갔다. 遼東은 遼東都司와 25衛 체제를 중심으로 9변 중의 한 곳이 되어 매우 중요한 중진이 되었다. 즉 洪武시기는 몽골을 방어하기 위해 都司와 衛所체제를 통해 9변을 형성하고, 兀良哈 3衛, 關西 7衛 등을 통해 북방의 방어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分封제도를 통해 諸王들을 변방의 重鎮에 파견함으로써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永樂帝는 洪武帝를 이어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초무정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회유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몽골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靖難의 역할을 통해 황제에 오르기 전 북변을 방어하던 藩王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의 정세에 매우 밝았으며, 몽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가장 잘 파악한 황제였다. 靖難의 역할이 진행되던 4년 동안 명조의 군사력은 내전에 소모되었으며 북변의 방어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永樂帝는 즉위 후 洪武帝의 방어체제를 재정비하였다. 방어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방어선을 축소하여 견고한 방어선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黃河의 오르도스(河套) 지역은 기존의 방어진역에

서 제외되어 방치되었으며, 大寧과 東勝 역시 방어선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永樂帝의 조치는 太祖 시기 명군이 점령했던 영토를 포기했다는 의미에서는 변방정책의 큰 실수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永樂帝의 입장에서 보자면 靖難의 役으로 변방의 군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재정을 축적하고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등 방어의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이해되어야 하겠다.

永樂帝는 방어선을 수축하는 동시에 변방에 주둔하고 있던 藩王들을 모두 강등시키고 都指揮使體制로 전환하여 군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북변을 충치휘하기 위하여 北京遷都를 구상하였다. 永樂帝의 몽골정책은 한편으로 친정을 단행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교류와 관계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兀良哈 3衛는 명의 북변과 직접 대치하여 遼東과 北京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를 왕으로 봉하는 등 어느 세력보다도 후한 대우를 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明의 변방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삼고자 하였다.

宣德·正統年間(1426~1449)에 이르자 永樂帝와 같은 대규모의 몽골친정은 진행될 수 없었다. 그 대신 견고한 방어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소극적인 방어체제로 인하여 명보다 몽골세력이 더 많은 사신을 보내 정치·경제적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서몽골의 也先(에센)이 강대한 세력을 키움으로써 명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며 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에센이 명을 침공한 사건은 명의 몽골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명의 황제가 也先에게 포로로 잡힌 土木堡의 變은 경제적 시각에서 보자면 몽골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와 그에 대한 명의 제한 정책이 충돌한 측면, 야선의 정치적 야욕, 명의 조공규모와 사신의 제한 등 변방정책의 잘못된 판단 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에센의 교역확대의 정책과 명의 조공규모의 축소요구는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土木堡의 變은 명의 몽골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곧 이 사건 이후 명은 변경방어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며 변방의 군사적 정비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명은 더 이상 몽골지역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몽골이 일방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형세로 명·몽골관계가 변화되었다.

요약해보면 洪武年間은 명이 주도적으로 몽골과의 관계를 진행시킴으로서 명의 전략이 몽골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宣德·正統年間은 장기적인 몽골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명은 소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조공관계를 통해서 몽골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몽골의 요구에 대해서도 타협과 요구는 하였지만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명의 몽골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오히려 몽골의 통공요구와 군사적 위협에서 몽골의 적극적인 정책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다.

宣德年間 이후 몽골지역은 동몽골과 서몽골이 번갈아 가면서 그 세력을 장악하였는데, 에센 이후 成化 15年(1479)에는 다이안한(達延汗)이 동몽골을 통일시키면서 서몽골 세력을 약화시켜 요동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반복되는 변방의 위기로 요동의 무관직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洪武年間 2만 8천여 명의 무관직 관리는 成化年間 8만2천여 명, 그리고 嘉靖年間 初期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외에도 황제권을 둘러싼 쟁탈전, 종실의 반란, 환관 세력의 성장, 환관과 내각의 충돌 등 왕조내부의 부패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져 갔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는 몽골 방어의 문제를 힘들게 만들었다.

正統~嘉靖初期 明의 몽골정책은 더욱 방어시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成化年間 余子俊은 榆林 長城을 수축하였으며, 弘治年間에는 固原長城이 강화 되는 등 嘉靖시기에 이르기까지 명의 몽골정책은 장성방어선을 강화하여 몽골방어체계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명이 방어선을 강화하면서 몽골의 통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결국 嘉靖 29年(1550) ‘庚戌之變’으로 대대적인 몽골이 침입하여 북경이 포위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몽골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방어체계의 문제점과 군민들의 방어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준 것으로 열악한 명 변경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명의 이러한 장성중심의 방어체계는 장성 밖의 정세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몽고정세에 대한 정보과 접촉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몽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

2. 女眞勢力的 成長

建州部는 渾河와 婆猪江 유역 등으로 옮겨 온 이후 지정학적으로 遼東都司와 朝鮮 등과 자주 접촉과 충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正統 元年(1436)~正統 14년(1449)의 시기 동안 建州部の 각 衛는 지속적으로 명에도 내조하였는데, 明朝는 建州部에 대하여 많은 관직을 내려줌으로써 朝鮮보다 우월한 여진회유정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正統 7年(1442) 建州衛 都指揮僉事 李滿住를 都督僉事로 승직시키고, 正統 12年(1447)에는 다시 都督同知로 승직시켰다. 그러나 正統 後期 서몽골이 명의 북부를 심각하게 침략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이들을 방어하려 갔던 英宗이 土木堡에서 포로로 잡히고 明軍이 覆滅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북변의 정세는 遼東都司에도 그 영향을 미쳤으며 이 기회를 틈타 생활필수품 등이 부족했던 女眞은 가축을 약탈하는 등 遼東都司를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변해갔다.

景泰 元年(1450) 5월 建州와 海西女眞의⁷⁾ 각부 1만 5천여 명이 遼東都司를 침입하였으며⁸⁾ 이후에도 크고 작은 女眞의 약탈과 침입이 증가하였다.⁹⁾ 明朝는 날이 성장하고 있는 女眞을 토벌할 계획을 세웠으며, 女眞은 이러한 명의 움직임에 살피며 渾河 유역과 婆猪江 유역을 자주 옮겨다니며 세력을 키워나갔다.¹⁰⁾ 女眞이 婆猪江으로 이동한 상황은 당시 그들에게 잡혔다가 朝鮮으로 탈출한 遼東人 唐貴

7) 叢佩遠, 『中國東北史』 第3卷, 吉林文史出版社, 1998, pp.723~727. 일반적으로 海西女眞은 遼東의 북부에 자리잡고 있던 세력을 가리킨다. 특히 그 중심세력은 海西江 즉 松花江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海西라는 칭호는 지리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海西女眞 지역에 많은 衛가 세워진 것은 永樂時期인데 永樂 4년~永樂 15년 사이에 松花江, 斡難江, 黑龍江, 嫩江, 등에 121개의 衛所가 설치되었다. 특히 塔山衛, 弗提衛(지금의 黑龍江 富錦縣 西古城), 兀者衛 그리고 考郎兀衛(지금의 黑龍江 同江縣 額圖古城) 등은 黑龍江 유역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海西女眞의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明 初期 奴兒干都司가 설치되었다. 또한 奴兒干都司가 기능을 상실한 후에도 이들 지역의 衛들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兀良哈 3衛가 동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成化年間 馬文升은 海西에 2백여 개의 衛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뒤 더 많은 衛가 松花江과 黑龍江 유역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말~16세기 초에는 海西女眞의 塔山左衛, 塔魯木衛, 弗提衛 등이 南遷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 주위의 세력들을 규합하여 군사동맹을 형성하였다. 1530~1570에는 遼河 상류에 까지 이르렀으며, 哈達, 烏拉, 葉赫, 輝發 등의 4部를 구성하여 扈倫 4部의 연맹체가 결성되었다. 주로 이들이 남하한 원인은 명과의 경제적인 교류, 농업기술과 비옥한 토지의 필요, 생산력의 증대, 그리고 몽골의 공격으로 부터의 피신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599~1619년 扈倫 4部는 누르하치에게 통합됨으로써 女眞의 통일을 가속화시켰다.

8) 『明英宗實錄』 景泰 元年 5月 癸丑.

9) 『明英宗實錄』 景泰 元年 6月 癸未.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가 전해졌다.

『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¹¹⁾ 통해 당시 建州 3衛의 인구를 대략 추산해 보면 建州衛는 약 1천 7백 여 호, 建州左·右衛는 6백호이며 기타 建州衛에 혼재되어 있는 海西女眞은 1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모두 인구로 추산하여 합치면 2만~3만 여명에 이르게 된다. 2~3만의 女眞勢力은 衛所 제도가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던 遼東都司와 변방이 비교적 허술한 朝鮮에 대해서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建州部の 遼東 약탈은 遼東의 위기를 점점 심각하게 만들어 갔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明은 칙유를 통해 적절히 처리하고자 하였다. 우선 都指揮 武忠 등을 毛隣衛 등에 보내 董山 등이 약탈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建州 3衛의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女眞 부락에도 역시 칙서를 보내 建州衛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遼東都司의 군대를 동원하여 建州를 토벌하고자 하였다. 곧 3군으로 나누어 撫順에서는 興京을, 鳳凰城에서는 婆猪江 유역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여 建州 3衛 지역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고자 하였다. 遼東都司 주력부대의 압력으로 女眞勢力은 成化 3년(1467) 4월에 조공을 오기도 하였다. 결국 明의 여러 차례의 군사적 공격으로 女眞의 지도자 董山은 처형되고 다수의 女眞人이 明의 군대에 의해 체포 구류되기도 하였으며, 女眞人 56명이 참수되고 2백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

明의 협조 요청으로 朝鮮에서도 女眞에 대한 초무를 진행하였다. 朝鮮은 李滿住의 본거지를 공략하여 李滿住 및 그 아들 古納哈 등 273명을 죽이고 포로 24명을 생포하였으며 200여 곳 이상을 불태우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朝鮮의 女眞政策은 형식적으로는 明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朝鮮의 북방정책을 실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곧 적절한 무력과 회유를 통해 女眞을 둘러싼 明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明과 朝鮮으로부터 받은 建州部の 손실은 수 천명의 사상자와 재산의 손실, 그리고 1천여 명이 포로로 잡히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建州 3衛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끌던 李滿住, 童倉, 古納哈의 지도자의 죽음은 지도자의 부재라는 현상을 낳음으로써 그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成化 4년(1468) 建州三衛의 指揮 阿魯力哈 등은 내조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부족을 풀어주고 三衛를 다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²⁾ 2년 후 建州左衛 都指揮 修那和札이 와서 董山의 아들 脫羅는 都指揮同知로 李古納哈의 조카 完者禿은 指揮僉使로 추천하여 明은 다시 승인하였으며 女眞은 다시 재기의 조짐을 보였다.¹³⁾

成化 13년(1477) 海西 各衛의 수령들은 建州 3衛를 규합해서 鴨綠江에서 가까운 靉陽堡를 공격하였다. 당시 明은 변경 밖으로 나가서는 안될 품목을 정해 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明의 제한 품목은 곧 女眞人的 경제교역 및 발전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女眞人은 종종 그들의 필요에 의해 교역금지 품목을 몰래 구입하여 변경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明에서는 그들이 구입한 물건의 내용을 점검하

10) 『朝鮮王朝實錄』 文宗 元年 4月 壬申. 당시 遼東監察御史가 朝鮮에 대해 “李滿住逃在婆猪江, 童倉 凡察逃在東分水嶺八道河極南 興汝國臨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建州部가 遼東都司의 招撫를 피해 朝鮮의 邊境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

11)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8月 甲戌.

12) 『明憲宗實錄』 成化 4年 3月 戊寅.

13) 『明憲宗實錄』 成化 4年 3月 戊寅.

겠다고 하였으며, 女眞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靉陽堡를 공격하였다. 成化 15年(1479) 9월 明朝는 太監 汪直을 都督軍務로 삼고 撫寧侯 朱永에게 征虜將軍의 印을 주어 總兵官에 임명하면서 建州를 토벌할 것을 계획하였다.¹⁴⁾ 그리고 11월 대대적으로 建州를 공격하여 659명을 참수하고 486인을 포로로 잡았음을 보고하였다.¹⁵⁾ 당시 朝鮮에서도 女眞의 위협이 심각하여 鴨綠江을 건너 女眞 지역을 토벌하고 있었으며, 成化 16年(1480) 2월에 女眞人 16명을 참수하는 등 女眞 지역을 공략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¹⁶⁾ 그러나 이러한 몇 차례의 建州 토벌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지속적인 약탈을 저지할 수는 없었으며 이후에도 建州部의 遼東에 대한 약탈은 계속되었다.

建州部의 지속적인 성장과 약탈은 遼東都司를 통한 遼東의 방어에 새로운 압력이 되었다. 특히 遼東 방어에 필요한 각종의 물자 및 식량공급은 遼東에서 衛所와 屯田을 통해 자체 수급해야 했으므로 屯田이 황폐화되고 있던 遼東都司에게는 큰 압력으로 다가왔다.

Ⅲ. 遼東都司의 危機

遼東은 宣德·正統 시기를 맞이하면서 永樂年間과는 달리 조금씩 퇴보하여 또 다시 식량문제의 곤란에 직면하였다. 永樂 시기에 생산되던 최대 70여만 석은 明 中期가 되면서 36만여 석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자급자족적 둔전경제를 통해 遼東을 방어해야 하는 明朝의 政策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 이미 宣德 4年(1429)에는 屯田制度가 舊例에 의거하여 운영되지 않고 屯田에 종사하는 인구수, 세액 그리고 둔군에 대한 녹봉 등이 지켜지지 않아 기강이 문란해지고 군량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¹⁷⁾

明朝는 屯田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朝鮮으로부터 耕牛 수만마리를 수입하여 屯田의 개발에 주력을 다하였다. 明朝는 우선 감소하고 있는 인력과 축력의 보충을 통해 遼東屯田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宣德 8年(1433) 8월에는 遼東의 衛에 소속된 屯車을 빈부와 노동력의 구분을 통해 屯田軍을 3등급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屯田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宣德~正統 시기의 20여 년간 遼東屯田政策은 永樂年間の 둔전생산량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둔전회복의 노력에 힘입어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둔전생산량은 여전히 부족했으며, 의식주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遼東의 屯田額은 後期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屯田 생산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¹⁸⁾

14) 『明憲宗實錄』 成化 15年 9月 丁亥.

15) 『明憲宗實錄』 成化 15年 11月 丁未. “謂建州賊在萬山中, 山林高峻, 道路險狹, 臣等分爲五路, 出撫順關, 半月抵其境, 賊據險迎敵, 官軍四面挾攻, 且發輕騎, 焚其巢穴, 賊大敗, 擒斬六百五十九級, 俘獲四百八十六人, 破四百五十寨, 獲牛馬千余”.

16) 『明憲宗實錄』 成化 16年 2月 壬申. “引兵渡江, 進搗巢穴, 斬首十六級, 生擒南婦十五人, 并獲遼東被掠婦女七人, 及驅其牛馬, 毀其廬舍”.

17) 『明宣宗實錄』 宣德 4年 2月 乙未.

18) 鄭炳喆, 위의 논문, p.6. 遼東의 屯田額은 永樂年間(21,171頃)을 기준으로 正統年間に 50%(31,620頃), 正德 3年(1508)에는 87%(39,520頃)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明代 각 시기별 屯糧(『遼東志』와 『全遼志』 參照)

時 期	屯 糧	備 考
明 初期	710,000석	
永樂 17年	635,145석	
正德 初期	451,390석	
嘉靖 16年	364,900석	
嘉靖 44年	377,789석	
萬曆 10年	290,740석	

요동 인구감소의 추세는 明 初期 강제이주 등을 통해 총 50여 만명을 확보한 이후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감소의 1차적 원인은 衛所 제도의 붕괴로 인한 衛所兵의 도망이다. 弘治 元年(1488) 兵部尙書 余子俊이 변방의 사정을 올린 글에 도망병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군사를 모아 변방의 내실을 기하자고 상주하였는데, 이는 이미 弘治年間(1488~1505)에 도망병이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¹⁹⁾ 물론 시기에 따라 다수의 인구가 도망간 기록도 보인다. 弘治 16년(1503) 吏科給事中 鄒文盛도 그의 상주문에서 ‘明初 遼東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였기 때문에 19만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은 상당수가 도망하여 7만의 군사만이 戶籍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인구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으며, 明代 遼東防禦를 위한 人口確保의 問題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²⁰⁾

衛所兵의 도망 외에도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隱占’이라고 할 수 있다. 隱占은 대부분 遼東 지역의 관원들이 함부로 군사를 사역시켜 자기의 私人처럼 만들고 屯田까지도 사유화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다.²¹⁾ 또 다른 인구감소의 원인은 遼東의 요역을 피해 山東이나 산간 지역으로 도망하여 이주하는 경우이다. 明 初期에는 倭寇를 방어하기 위해 연해도서에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명 중엽 이후 이러한 섬들은 요역 등을 피해 도망하는 유민들의 도피처가 되었다.²²⁾ 특히 鵬綠江 하류 유역의 섬들에는 朝鮮人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薪島, 鹿島를 거쳐 界島에서 집터 19곳을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小長山島에서는 明人 78인과 朝鮮人 34명을 잡아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²³⁾ 이외에 사람들이 遼東八站의 산간지역으로 도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明은 유출되는 인구를 막기 위하여 越境禁止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들의 이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으며, 결국 많은 인구가 明의 遼東都司 관할지역을 벗어나 동부 산간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지역으로

19) 『明孝宗實錄』 弘治 元年 12月 丁巳. “遼東各衛軍冊無存, 以致逃亡日多, 奸弊百出, …… 其招募軍士, 務充原額, 不得虛應故事”.
 20) 『明孝宗實錄』 弘治 16年 正月 甲午. “國初設二十五衛, …… 先年官軍十有九萬, 近或逃回原籍, 或潛匿東山, 或爲勢豪隱占, 見在只七萬之數”.
 21) 『明孝宗實錄』 弘治 16年 12月 辛酉.
 22) 『明孝宗實錄』 弘治 12年 3月 乙卯.
 23)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6月 庚戌.

홀려들어간 사람들은 도적이 되기도 하고 혹은 銀을 채굴하여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였다.²⁴⁾

遼東都司는 인구확보 정책을 시행했지만 明 後期가 되면서 40~50만에 이르던 明 中期의 인구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遼東 지역은 당시 몽골 세력과 女眞 세력에 의해 심각한 약탈을 받고 있었으며 더구나 군사의 도망과 屯田의 황폐, 관원들의 草地 침탈 등이 더해지면서 요동인구는 증가할 수 없었다. 萬曆年間(1573~1620) 朝鮮에서 壬辰倭亂이 발생하면서 遼東의 物力과 人力이 朝鮮으로 지원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遼東의 재정과 군사력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天啓年間(1621~1627) 遼東의 혼란으로 遼西 지역을 거쳐 山海關으로 들어간 인구가 상당하였다. 이 시기 遼東 防禦線은 거의 붕괴됨으로써 山海關으로 들어간 인구가 적게는 10여 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최소한 10여만 명은 전쟁을 피해 入關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²⁵⁾ 山東으로 피난한 사람도 매우 많았다. 遼東都司가 설치된 遼陽이 女眞에게 함락된 이후 遼陽 등의 관민과 遼南의 海州 盖州 등의 사람들이 海路를 이용하여 山東으로 피난하였는데 山東登州海防按察使 陶郎先에 의해 관원 594명 군사 3천8백여 명 일반백성 34,200명 등 모두 38,794명이 山東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⁶⁾

朝鮮으로 도망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는데, 毛文龍이 朝鮮으로 넘어올 때 군사 2만6천여 명과 난민 9~10만, 거의 10여 만에 가까운 인구를 인솔하고 朝鮮으로 넘어왔다. 이 숫자만 합쳐도 山海關·山東·朝鮮 등으로 도망해 온 군사가 최소 25만 이상이며, 25만이 遼東을 빠져 나왔다면 당시 遼東都司 지역내의 인구밀도가 얼마나 낮았을지는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 明 後期 遼東都司 관할지역 인구는 약 40만 정도였으나, 明과 女眞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入關한 사람이 15만 명, 山東으로 이주한 사람이 약 4만명, 朝鮮으로 간 사람이 10만명, 瀋陽·遼陽 등 後金の 점령지에 남아있던 사람이 10~15만명 정도 그리고 전란 중의 사상자가 약 3~5만으로 급속히 인구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明 後期 遼東都司가 遼東 인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원인은 전쟁 이외에도 다른 측면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 遼東의 지리적 특수성, 遼東都司 防禦體制의 전략적 실패, 屯田과 관련된 부역의 과중함, 자연재해의 위협 역시 遼東 인구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明代 遼東馬政이 初期부터 여러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지만, 점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明代 馬政의 실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이다. 馬政의 관리체제를 보면 중앙의 太僕寺와 지방의 行太僕寺·苑馬寺가 일원화되어있지 않고 分職되어 있었다. 馬政과 관련한 군사업무는 兵部가, 재정문제는 戶部가 처리하는 2중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兵部和 戶部の 상호견제를 야기하여 行太僕寺·苑馬寺의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권한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요동도사 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군미수급의 실패를 들 수 있다. 正統年間(1436~1449)부터

24) 『明世宗實錄』 嘉靖 2年 12月 辛丑. “遼東東南多金銀穴, 口內流民誘亡命盜礦, 甚者肆出虜掠”.

25) 『明熹宗實錄』 天啓 2年 1月 乙丑과 2月 戊辰에는 각각 10만여 명과 수십만명이 전쟁을 피해 入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三朝遼史實錄』 卷10에는 1백여 만명이 入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인구규모로 보아 100여만 명의 인구가 入關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26) 『明熹宗實錄』 天啓 元年 5月 癸丑.

遼東 정세의 악화로 馬政의 관리는 날로 해이해졌으며,²⁷⁾ 成化年間 그 규모가 明初의 6분의 1로 축소되면서 말의 보유량도 더불어 감소하였다. 그리고 다시 嘉靖年間(1522~1566)에 이르면 규모가 明 初期의 12분의 1로 다시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明 後期에 이르면 더 이상 遼東의 馬政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변과의 말교역에도 불구하고 明의 말 공급은 늘 부족하였으며, 明은 부족한 戰馬를 확보하기 위해 遼東 각지의 민간에서도 말을 기르도록 장려하였다. 遼東은 벌판이 넓어서 말 사육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간을 통한 養馬정책은 馬價가 뛰었을 경우 민간의 말을 이용하여 그 수급을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明대 馬政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永樂 시기 몽골친정을 위하여 여전히 朝鮮으로부터 많은 양의 戰馬를 사들여갔다. 黃巖 등을 파견해 永樂 시기 교역된 朝鮮의 말이 약 2만여 필로 추산되고 있는데,²⁹⁾ 이는 遼東馬政이 여전히 주변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正統 이후 馬政의 경영은 날로 심각한 문제점을 낳기 시작하였으며 明은 遼東馬政의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³⁰⁾ 馬政의 폐해에 대한 개혁은 이미 宣德年間(1426~1435)에 제기되었다. 특히 말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太卜寺가 모든 馬政과 관련된 행정적인 것을 통합처리하여 馬政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宣德帝는 이 사안을 이부와 병부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苑馬寺卿 등의 관리들은 吏部의 관리들이 담당하였으며, 말은 兵部의 관리로써 그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永樂帝 이후 遼東馬政은 苑馬寺의 존재여부를 논할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永樂 시기 20여만 필에 달하던 말이 20여 년이 지난 宣德年間에 4분의 1로 급감하였다.³¹⁾

嘉靖 14년(1535) 遼東 苑馬寺의 말 보유량은 다시 3천 9백여 필에 불과하였다. 당시 遼東 苑馬寺卿이었던 馮時雍은 3천필의 종마를 확보하고 말이 죽었을 경우 10인이 배상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8년 후 6천여 필의 말을 확보할 수 있었다. 馮時雍의 馬政 개혁은 말 증가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후 점차 遼東 정세의 악화로 와해되면서 단기간의 개혁으로 끝나버리고, 隆慶·萬曆年間에는 遼東苑馬寺의 기록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萬曆 시기 遼東 정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미 遼東은 말 수급 능력을 상실하고 養馬 지역에서 말이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고, 이는 군사력을 약화시켜 遼東防禦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곧 遼東都司 지역은 풍부한 말을 보유했던 지역에서 말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으로 변해있었다. 그리고 상당부분 말구입에 필요한 馬價는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27) 『明孝宗實錄』 弘治 2年 8月 辛卯.

28) 『明會要』, 「馬政」.

29) 姜龍範·劉子敏, 『明代中朝關係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9, p.172.

30) 『明孝宗實錄』 弘治 2年 8月 辛卯. “自正統後, 馬政日弛, 邊方用馬不仰給于京師, 必括買于民間, 太卜所儲馬價有限, 邊方仰給無窮, 宜行陝西 遼東 山西巡撫官, 嚴督苑馬寺, 行太卜寺加意牧養, 以復舊制”

31) 말의 감소는 永樂 시기 대규모의 몽골 親征으로 많은 양의 말을 소비한 것과 관련이 있다. 永樂시기 대규모의 몽골 親征은 수십만의 기병을 기본으로 조직하고 있었는데, 北征할 때마다 매번 遼東總兵이 騎兵을 데리고 참여하였다. 그러나 丘福의 정벌과 같이 전투에서 패했을 경우 10만의 기병이 복멸되면서 10만 필의 말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永樂 시기 5차의 몽골친정은 遼東이 보유한 말을 상당수 소비하였으며, 이는 곧 말 보유량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結 論

이상과 같이 明代 都司體制와 奴兒干都司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몽골과 여진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明은 初期 遼東의 先占을 위해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 그리고 衛所體制를 정비함으로써 遼東支配의 기초를 다지고 그 관할지역을 黑龍江 하류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방어 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明朝는 대외적으로 遼東都司를 통해 몽골 兀良哈 3衛를 통제함으로써 동서몽골을 방어하고 遼東都司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明朝는 주변의 어느 세력보다도 가장 우호적으로 兀良哈를 대우하였다. 그러나 兀良哈는 실제로는 동서몽골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正統年間 동서몽골은 兀良哈 3衛를 위협하고 나아가 遼東都司 지역을 공격하여 遼東都司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으며, 이미 몽골과 女眞勢力的 연합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몽골 也先의 성장으로 동몽골과 兀良哈 3衛는 정통년간 그들의 통제를 받았으며, 이후 遼東都司는 더 이상 몽골세력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초기에 明의 위소체제속에 설치된 兀良哈는 이후 더이상 明의 통제하에 들 수 없었으며, 兀良哈는 점차 遼河套流域으로 南遷하여 女眞勢력과 遼東都司를 위협하는 주요한 세력이 되었다. 더구나 也先은 大同·宣府·北京을 비롯하여 開原·瀋陽·撫順城 등 遼東都司 內地까지 대대적으로 침략함으로써 明代 9邊의 모든 방어력을 약화시켰다.

宣德年間에는 永樂年間 설치된 奴兒干都司가 이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吉林과 黑龍江 지역에 대한 明의 통제력은 감소하였다. 이로써 여진지역 역시 明의 관할과 통제에서 벗어났으며, 明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女眞衛所도 축소되어갔다. 明朝가 女眞衛所를 설치한 목적은 장기적으로 女眞을 견제하고자한 것이었지만, 여진의 성장에 따라 交易의 規模와 時期 역시 初期에 비해 커지고 빈번해 졌다. 交易를 통해 女眞을 견제하려던 明의 정책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女眞의 成長을 촉진하였다. 특히 建州女眞은 遼東都司에서 가까운 婆猪江과 渾河 유역으로 옮겨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朝鮮·明을 빈번하게 접촉함으로써 농업기술과 식량을 축적하고 군사력을 서서히 키워나갈 수 있었다.

明의 요동정책과 병행하여 遼東都司는 驛站과 城堡를 통해 방어선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몽골과 女眞의 침입을 견고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곧 다시 방어선의 강화라는 반복된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으며, 곧 遼東邊牆修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遼東邊牆의 修築은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수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방어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明은 견고한 장벽에 막혀 더 이상 여진과 몽골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塞外지역의 정보로부터 차단되었다. 더구나 遼東都司의 울타리 역할을 해오던 兀良哈 3衛가 점차 북부의 몽골세력에게 병합되어 감으로써 明朝는 더 큰 방어군을 북변에 투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미 변방 위소군의 도망은 속출하고 있었으며, 둔전량도 감소하는 등 내부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외에도 人口의 減少, 토지의 독점, 民變과 兵變, 전마의 부족, 요동정세의 악화 등 방어체계를 약화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였다.

살펴 본 바와 같이 明代 遼東은 9邊의 극동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초기지였다. 그러나 明의 遼東政策은 明代 9邊을 방어하는 북변정책의 일환에서 이루어졌다. 明代 9邊 중심의 방어정책은 洪武·永樂시기의 군사적 정벌을 제외하면 매우 소극적인 방어정책으로 일관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漢族王朝가 가지고 있던 領土認識과 軍事的 限界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明代 몽골·여진정책은 明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질서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이었으나 초기부터 북방지역으로의 진출이 차단됨으로써 대외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외세력에게는 明의 방어선 밖에서 자유롭게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명대 북방세력의 성장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며, 明代 北方史와 遼東史는 명과 北方民族의 다원적인 관계속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세력의 성장으로 서서히 소극적 방어전략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明 中期 遼東邊牆의 修築으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하면서 遼東都司는 더 이상 외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이로써 遼東都司의 대외적인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그리고 明代 後期가 되자 遼東都司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한계를 보이면서 遼東都司는 더 이상 영향력 있는 遼東支配의 중심이 아니라 이미 그 힘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明代 遼東支配之構造及其局限

明朝初期爲了首先占領遼東地區，通過遼東都司和奴儿干都司的設置，控制遼東，其勢力擴張到黑龍江下游地區。明朝爲了防衛東西蒙古，在遼東建立了兀良哈三衛，并且對兀良哈三衛實行了很多優惠的政策。但是兀良哈實際上仍然受到蒙古的統治。正統年間，東西蒙古直接威脅兀良哈三衛，接着進攻遼東都司地區，弱化了遼東都司的防禦力量。同時，正在形成蒙古勢力与女真勢力的聯合。西蒙古的也先向兀良哈三衛地區的擴張，与明朝發生了正面的冲突。這樣，遼東都司无力統制兀良哈，兀良哈逐漸南遷到遼河流域，同女真勢力一起，威脅到遼東都司地區的安全。也先先占領大同、宣府等地后，不久，侵入開元、沈陽、撫順城等遼東都司地區，弱化了遼東都司的防禦力量。宣德年間，永樂時期建立的奴儿干都司的統制力逐漸喪失，明朝對吉林和黑龍江地區的統治繼續弱化，明朝所直接統治的衛所也被縮小。

明朝爲了更好地統治女真，提高他們在經濟上的依賴性，与許多女真衛所建立朝貢關係。但是，隨着双方交易規模的頻繁，明朝最初的牽制女真族的政策，反而促進了女真勢力的成長。尤其，建州女真向婆撻江和渾河流域地區移動和開始定居后，改善其農業技術，增加農業生產，從而軍事力量也得到了增強。奴儿干都司之机能被喪失的宣德8年（1433），在松花江流域從事造船業的五百多名漢族進入海西女真地區后，推動了這一地區農業生產的發展。

隨着蒙古和女真勢力的增長，明朝的對外政策轉變爲防衛政策。遼東邊牆也失去了其堅固的防禦線作用。嘉靖年間，對遼東都司起過屏障作用的兀良哈三衛被并入到蒙古，這樣明朝在其北部邊疆投入更多的軍事力量防衛建州、海西女真和蒙古勢力。

明后期，遼東都司內部也發生了許多很難解決的問題。首先，人口的減少、衛所軍的逃亡、土地的獨占、屯田生產力的減少、遼東局勢的惡化、民亂和兵亂等問題，弱化了遼東都司的防禦体系。其次，遼東都司的馬政也出現了許多問題，戰馬數量大大地減少，此時戰馬數量不如占明初的十分之一。遼東是明朝九邊防禦

体系的重鎮之一，防禦蒙古和女真的重要戰略要地。明朝對遼東都司的政策非常重要，甚至涉及到整個中原的命運。永樂年間，明朝遼東都司的管轄範圍擴張到最大限度，但是，隨著蒙古和女真勢力的增長，遼東都司防禦體系最終轉變為消極的防禦體系。不僅如此，明後期，明政府對遼東都司政策的很多漏洞，導致遼東都司支配遼東能力的喪失。明後期，遼東都司最終變成了一個形式上機構。

主題語： 遼東都司, 奴兒干都司, 九邊, 兀良哈三衛, 遼東邊牆.